

# 조선시대 당파에 따른 복식 연구

구 남 옥\*

전주대학교 전통패션문화전공 강의전담교수\*

## Research on the Influences of Political Parties on Fashion Styles in Chosun Dynasty

Nam-Ok Ku\*

Professor, Dept.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Jeonju University\*

(2002. 10. 22 투고)

### ABSTRACT

The following results are from a research on the influences of the political parties on the fashion styles, which political power was struggled with each other were one of the political phenomena featuring Chosun Dynasty.

Partisan fashion styles are mainly divided into two groups: *NohRon*(老論) and *SohRon*(小論). Nonetheless, *NamIn*(南人) also shows several unique traits. *BukIn*(北人), however, does not seem to be retaining any unique styling features, which believed to be caused by lack of political power.

The style of *NohRon* represents the status of a ruling party, which generally had abundant resources and the image of a conservatism. On the contrary, with *SohRon*'s style, swiftness and reform-minded images could be found. Moreover, the *NohRon*'s style is generally known to present, as the representing the way of noble men of Chosun Dynasty wore in the past. The reason seems to have stemmed from its status as the last ruling party in Chosun Dynasty. Thus, many people of the age mimicked the style, and it gained general acceptance in turns. Consequently, it is still deemed as the prevalent style of Chosun Dynasty.

Key Words: Chosun Dynasty(조선시대), The political parties(당파), Costumes(복식)

### I. 서론

당(黨)은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조

직한 집단을 뜻하며, 당파(黨派), 붕당(朋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당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사회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하게 생겨나

는 정치현상이며, 특히 성리학 중심주의였던 조선은 문치주의에서 파생된 당쟁으로 인하여 선조 조부터 약 200년 간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 후기인 18세기, 사색당파로 분화되어 당쟁이 극도로 심화되었을 때 이들은 당의 생존에 사활이 걸려있었다. 여러 환국을 겪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골은 점점 깊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파에 대한 결집이 강하여졌으며, 그러한 결집력은 학문과 정치적 견해 뿐 아니라 생활방식과 복식에 이르는 동조현상으로 나타났으며 통혼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부녀자들의 모습만 보아도 그 가문의 당을 알 수 있었다고 하며 옷차림새를 두고 양반 상놈 운운하며 반대당을 간접적으로 헐뜯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속설이 당쟁이 격심하였던 일부지방에서는 근래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복식과 연관된 당쟁의 흔적들이 문헌이나 전래담, 증언 등에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본 고에서 조선시대 당파에 따른 복식현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조선시대의 당쟁 혹은 당파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복식과 연관된 논문은 전무한 상태이며, 당쟁에 따른 복식에 대한 기록들도 일부 논문 혹은 단행본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간헐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두식, 의복, 색에 나타나 있는 각 당파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당파에 따른 복식이 나타나 있는 단행본 및 논문 등의 문헌자료들을 1차 중심자료로 하고 고문헌과 민속조사보고서, 복식 유물, 회화 등의 2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문헌자료에는 언급되어있으나 2차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부분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 II. 조선시대 당쟁 약사

조선시대는 성리학에 기반을 둔 유교국가로 출

발하였다. 조선 전기인 태조부터 세조까지는 이른바 혁명기로 국초의 혼란을 수습하는 시기였다. 이 혁명기를 거쳐 연산군부터 명종까지는 사림파와 비사림파로 갈라져 서로의 정치권력을 두고 투쟁한, 이른바 사화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명종 말기에서부터 사림들이 득세하기 시작하여 선조가 옹립됨으로써 정치는 완전히 이준경을 중심으로 한 사림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때부터 사림 관료들 사이에 이조좌랑직을 놓고 갈등이 생겨 마침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었으나 아직은 큰 당쟁으로까지 격화되지 않았다.

동과 서의 대립에서는 동인이 먼저 득세하였다. 그 후 동인은 서인 정철의 건저의사건에 따른 서인에 대한 처벌 문제에서 온건한 처벌을 주장한 이황의 문인측과, 강경한 처벌을 주장하는 조식의 문인측으로 양분되었는데 이 대립으로 남인과 북인이 생겼다<sup>1)</sup>.

임진왜란 이후 세력이 강하여진 북인이 광해군을 추대하였기 때문에 광해군 대는 북인이 정권을 전담하였다. 그러나 북인에게 눌러 있던 서인은 능양군과 결탁하여 광해군을 죄로 몰아 폐하고 인조를 옹립하였다(인조반정, 1623). 이 이후 오래 동안 서인이 정권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효종 때에 송시열이 등용되면서 서인은 그 정치적 기반을 굳게 하기에 이르렀다<sup>2)</sup>.

그러나, 서인은 가끔 남인의 도전을 받기도 하였다. 효종의 모후 조대비의 상복 문제를 에워싼 예송논쟁(禮訟論爭)에서 서인을 물리치고 남인이 등용된 일이 있었으며(1674), 또 장희빈의 몸에서 난 왕자의 세자책봉 문제 때문에 역시 서인 대신에 남인이 등용된 일이 있었다.(기사환국) 그러나 남인의 정권은 몇 년 안 되는 짧은 기간동안 유지되었을 뿐이었으며 숙종20년(1694)에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한 이후로는 오랜 기간 동안 서인이 정치의 신권을 쥐게 되었다. 그리고 서인이 송시열 계열의 노론과 윤증 중심의 소론으로 갈린 뒤에는 노론이 주로 정치의 권좌에 눌러 앉아 있었다<sup>3)</sup>.

이렇듯 당쟁은 선조에서 영조로 이어졌다. 영조는 이러한 당쟁을 방지하기 위해 탕평책을 쓰면서 노론·소론을 병용하고 사색을 공평하게 등용시켰

으며 동색금혼폐를 만들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더구나 사도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는 시파와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벽파의 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또 다시 당쟁은 이어졌다.

순조 이후 노론·소론의 대립은 약해졌으나 안동김씨와 풍양조씨 등 권문세가의 세도정치 시대로 변화였다.

본래 당쟁은 정치사회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하게 생겨나는 정치현상이다. 따라서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현상이다. 특히 조선은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전형적인 문치주의가 실시되었다. 당쟁은 이러한 문치주의에서 파생된 권력투쟁의 한 형태이며 나름대로의 의리와 명분이 있었다.<sup>4)</sup> 그러나 사학자들이 조선시대의 당쟁을 지나치게 비하하여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 왔다. 실제적으로 관직을 갖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 당쟁의 기본 원인이 되었으며, 각 당파의 생존은 가문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므로, 사회의 개선이나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따라서 각 당파는 생존을 위하여 반대당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타적이었으며,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 없는 대립으로 이어져 결국은 국난의 원인을 만들기도 하는<sup>5)</sup> 등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18세기 초, 남인·북인·노론·소론의 사색당파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남인과 노론·소론의 삼색당파였다고 할 수 있다. 북인은 광해군 재위 15년 간 정권을 잡았을 뿐 인조반정 후로 완전히 숙청되어 일부는 남인과 노론과 소론에 합류하여 한 당파로 성립될 기반이 미약하므로 사색당파는 아니라 할 수 있다.

### Ⅲ.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당색

조선시대의 당쟁 중 가장 극심했던 당쟁은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였던 예송논쟁의 발단부터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어 남인·소론·노론의

대립이 이어진 영조 조까지라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당쟁의 골이 매우 깊어 같은 당끼리만 통혼을 하였으며, 같은 당의 사람들은 걸음걸이도 같고 어투도 같았으며 하인 다루는 태도도 같을<sup>6)</sup> 정도로 동조의식이 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쟁이 끝난 조선시대 말까지도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의 복식에서도 당색이 나타났으며 두식과 옷차림새가 달랐기 때문에 부녀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그 집안의 당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복식에 나타난 당파간의 동조현상은 남인·노론·소론으로 구분된다.

#### 1. 두식에 나타난 당색

##### 1) 여자 두식

먼저 여자 복식 중 두식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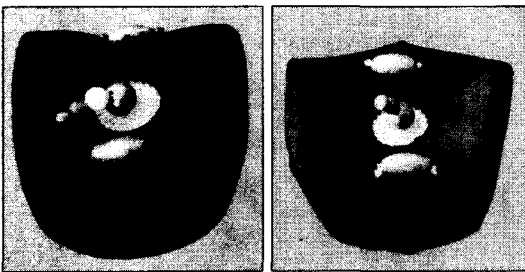
두식은 관모류와 머리모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경우 모두 당파에 따른 동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관모류 중 족두리는 궁과 반가의 의례용 관모로 그 유래는 고려시대에 원나라에서 유입된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에서는 광해군 중기에 일시적으로 유행하였으나 국속으로 변화했다는 기록이 있으며<sup>7)</sup> 본격적으로 족두리의 착용이 언급된 것은 영·정조의 체계금제령 때 가체의 대용품으로 족두리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족두리는 검은 비단 6폭을 이어 둥글게 꿰매고 속을 비도록 만들며, 속에 솜을 두기도 한다. 겉에는 아무 장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며 위, 중앙, 옆면에 칠보, 밀화, 옥 등을 장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모양과 제작법에 따라 솜족두리와 흠족두리로 나눌 수 있다. 솜족두리는 족두리 틀에 솜을 두어 둥글둥글하게 만든 것이며 흠족두리는 솜을 두지 않아 각이 진 형태의 족두리를 말한다. <도 1, 2>는 솜족두리와 흠족두리의 사진이다. 같은 장식으로 꾸며져 있으므로 그 모양의 차이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다.

노론측의 부녀자들은 솜족두리를, 소론측 부녀자들은 흘족두리를 착용하였으며<sup>8)</sup> 남인도 흘족두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sup>9)</sup>. 어느 집단에도 속하여 있지 않던 부녀자의 경우는 노론이 득세할 때는 솜족두리를, 소론이 득세할 때는 흘족두리를 쓰는 것이 하나의 사회 풍조였다.<sup>10)</sup>

머리모양의 경우 쪽을 진 남자의 모양에 따라 당색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론측은 어깨에 당을 정도로 느슨하게 쪽을 찌었으며 소론의 경우는 뒤통수에 올려붙여 쪽을 찌었다<sup>11)</sup>.



<도 1> 솜족두리  
『속한국복식사』, p.142

<도 2> 흘족두리  
『속한국복식사』, p.143

노론·소론으로 분당된 시기가 영조년간이므로 두식도 당시 체계금제령에 합당한 양식인 족두리와 후계(後髻)에 당색에 따른 동조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족두리에 대한 삼당의 당색의 근거는 찾을 수 있었으나 머리모양의 경우 남인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 2) 남자 두식

남자의 두식 중 복건(幅巾)에서도 당파의 분류가 나타났다.

복건은 남자용 두식의 하나로 머리 뒷부분은 곡선으로 둥글게 하고 앞단에서 귀 위 부분에 좌·우 2개씩 주름을 잡는데 아래 주름에 끈을 달아 뒤로 돌려 맨다. 조선시대 사대부나 유생들이 심의(深衣), 학창의(鶴擎衣)와 함께 착용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명절이나 돌에 남자아이들이 쓰고 있다.

이것은 중국 고대부터 관을 대신하는 간편한 쓰개로 사용되었고 후한(後漢)대에 이르러 유행이 되어 진·당 때에 차차 은사, 도인의 아복(雅服)을 이

루었으며 송(宋)대에 이르러 사마광이 복건과 심의를 연거의 관복으로 착용하고 주희가 이것을 가례가운데 추가한 다음부터 유자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sup>12)</sup>

이 복건에 당색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570년경으로 퇴계 이황이 김취려가 심의와 복건을 보내왔을 때 복건을 보고 ‘마치 僧巾같아서 (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뜻) 쓰기에 마땅치 않다.’하고 심의에 정자관(程子冠)을 쓴 것에서 비롯되었다<sup>13)</sup>.

이황은 동방의 주자로 불리는 조선시대 굴지의 주자학자이자 주리파의 선구자로 우주의 근원을 이루는 이와 기는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이기이원론을 주장하였다<sup>14)</sup>. 그는 도덕적 신념과 이를 실천함에 있어서 절조와 기백을 중히 여겼으며 유성룡, 김성일 등과 함께 영남학파로 계통을 이어나갔다. 이이의 주기파와 대립됨에 따라 동인과 서인의 분당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황은 동인의 거두가 되었고 후에 정철의 건저의사건으로 인한 정철의 처벌문제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뉠 때 그는 남인을 이끌었다.

따라서 남인들은 이황의 선례에 따라 복건을 착용하지 않았다.

정조 때에 정조가 당색을 근절하고자 정약용으로 하여금 복건을 매개로 남인과 서인의 화합을 꾀하고자 한 일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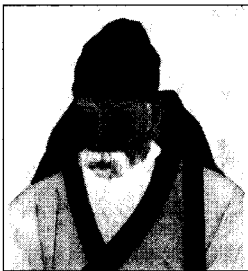
‘복건은 제도법을 잃어버려 주자가 논한바 橫巾之法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남인들은 복건을 쓰지 않는다. 임진(1796) 겨울 상께서 연신들에게 이르기를 한 조정에 함께 있으면서 巾服의 제도가 다른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채좌상, 이가흔, 이기양, 정약용 네 사람이 쓰면 남인은 반드시 모두 쓸 것이 내일 4인이 모두 입궐하고 또 복건을 쓰도록 하고 금호문 밖에서 벗도록 하라 하니 이에 사가(四家)에서 밤 가는 것을 잊고 검은 비단을 샀으나 부인들이 이제 제조법을 몰라서 편지를 보내 서인의 복건을 빌려서 밤새도록 꿰매어 만들어 아침에 맞추어 대궐에 나아갔으니 역시 성세의 일이었다.

이때에 노론은 일궐하면 반드시 單巾이요, 소론을 일궐하면 반드시 裕巾이었다.

내가 승정원에 도착하니 서로 다투어 물었다. 내가 웃으면서 속담에 물리려면 차라리 큰 호랑이에게 물리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4인이 모

두 單巾을 쓰니 노론이 크게 기뻐하였다.<sup>15)</sup>

위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 동인·서인으로 분당된 지 200년 가까이 남인들은 복건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복건을 착용하였던 서인도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면서 노론은 홀으로 만든 단건을 소론은 겹으로 만든 겹건을 착용하여 속한 당색을 표현하였다.



<도 3> 송시열 像  
「한국복식문화사전」, p.207



<도 4> 황현 像  
「한국의초상화」

<도 3, 4>는 심의차림의 조선 후기 학자들의 모습이다. <도 3>은 송시열(1607-1989)상으로 서인에서 노론으로 이어진 노론계의 거두답게 심의에 복건을 하고 있으며, <도 4>는 황현(1855-1910)상으로 심의에 정자관을 쓰고 있다.

## 2. 의복에 나타난 당색

### 1) 저고리

부녀자들의 의복에서도 당색이 나타났다.

먼저 저고리의 경우 노론과 소론의 당파에 따른 깃 형태의 차이를 들 수 있다<sup>16)</sup>. 노론측의 깃은 다른 일반의 것과 비슷한 형태로 당코를 약간 깊고 세련된 선으로 만들었고 깃머리도 둥글게 하였다. 이에 비해 소론가의 경우는 깃머리도 모나게 하였으며 당코를 파지 않고 밖으로 삼각모양으로 뾰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소론 가문을 '당코'라 속칭하였다 한다<sup>17)</sup>.

깃 뿐 만 아니라 고름도 다르게 달았다. 노론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깃과 쇄의 경계 면에 고름의 중간부분을 대어 달았으며 소론가의 경우는 쇄에는 걸치지 않고 깃의 아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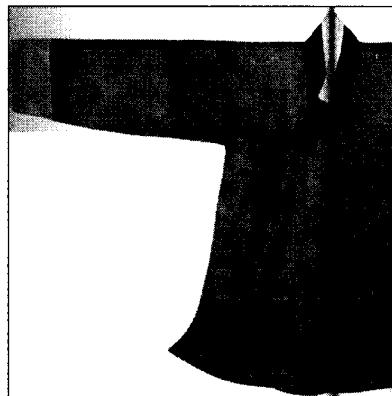
<도 5> 노론가 저고리  
「한국복식사」, p.516



<도 6> 소론가 저고리  
「한국복식사」, p.516



<도 7> 노론가 당의  
「한국전통복식사연구」



<도 8> 소론가 당의  
「한국복식2천년」, pp.80-81

에만 단 것이 특징이다<sup>18)</sup>.

<도 5>는 혼례용 저고리로 후대의 것이나 노론가의 저고리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도 6>은 소론가의 저고리로 깃과 고름의 위치가 소론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당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편향이 나타나 보인다. <도 7>은 김병국(1825-1904) 일가의 묘에서 출토된 당의이다. 김병국의 가문이 안동 김씨로 전형적인 노론형의 당의임을 알 수 있다. 저고리와 마찬가지로 둥근 깃머리와 깃에 옆에 걸쳐있는 고름이 달려 있으며 모나지 않는 당코깃의 모양을 하고 있다. <도 8>은 형태 면에 있어서 유사하나 깃이 뾰족하게 도드라진 당코깃에 고름이 깃 부분에만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소론가의 것으로 추정된다.

## 2) 치마

치마의 차림에 있어서도 당색이 드러났다.

1985년에 실시된 민속자료조사보고서<sup>19)</sup>와 1986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한 고부자의 연구<sup>20)</sup>와 이은주 외 2인의 연구<sup>21)</sup>를 종합하면,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지방은 현재와 같이 원 여밈으로 여뻬으며, 경상도의 경우 원 여밈과 오른 여밈이 공존하였는데 오른 여밈이 더 많았고 진도와 제주도는 오른 여밈임을 알 수 있었다. 경상도는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조선후기 명문가들의 집결지이자 영남학파의 시원지로서 이황, 유성룡, 김성일 등 명현거유(名賢巨儒)를 배출하였으며 조선후기 남인계가 세력을 떨친 곳이다. 따라서 명문 세도가들인 노론측은 원 여밈으로, 남인계열은 오른 여밈으로 치마를 여머서 착용하였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진주·사천지방을 조사한 자료<sup>22)</sup>를 보면, ‘오른 꼬리가 양반, 상사람은 원 꼬리’라는 것과 ‘양반이기 때문에 외로 여뻬으며 상사람은 오른쪽으로 여민다. 남인이 오른쪽’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 지역에 노론계와 소론계가 동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쟁 발생 전인 16세기의 출토 유물을 보면 치마의 여밈이 예복용이나 평상복용 모두 오른 여밈으로 되어있음이 밝혀졌다.<sup>23)</sup> 또한 17세기의 치마<sup>24)</sup>에서도 오른 여밈이 확인되므로 노론·

소론 분당이 시작되기 전에 치마는 오른쪽으로 여머 착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문화에서 여미기 편리한 방향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 치마 여밈 방향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차림새는 왼쪽이 양(陽)이고 오른쪽이 음(陰)인 음양사상(陰陽思想)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노론·소론 분당이 시작된 18세기의 풍속화에서는 오른 여밈과 원 여밈이 공존하고 있으나 대부분 오른 여밈이다. 심지어 김홍도 1인의 작품 속에서도 오른 여밈과 원 여밈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25)</sup> 이것으로 분당과 함께 여미는 방향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대표적인 노론가인 안동 김씨의 분묘의 19세기 출토품 치마가 원 여밈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sup>26)</sup>을 통하여 노론의 분당이 치마 여밈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마 여밈 방향의 변화에 관하여 박성실<sup>27)</sup>은 재봉틀의 도입을 그 원인으로 두고 있으며 이은주<sup>28)</sup>는 노론이 다른 당파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치마 여밈을 오른 여밈에서 원 여밈으로 바꾸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 초기 오른 여밈의 치마 여밈 구조가 1680년 경신환국 후 노론·소론으로 분당되면서 노론계가 원 여밈으로 바꿈에 따라 치마 여밈이 당색에 따라 좌·우임이 혼용되었으며 18세기 이후 노론이 집권함에 따라 경기·양반식은 원 여밈이라는 사고가 생기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치마의 여밈 방향에 따라 양반이니 상놈이니 기생이니 하며 반대 방향으로 여미는 측을 비하시키는 데, 이러한 풍습이 노론과 소론이 공존하였던 지방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치마 착용 방법에 빗대어 반대당파를 간접적으로 헐뜯는 것으로 생각된다.<sup>29)</sup>

이러한 여자 복식의 차이는 노론과 소론의 학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론, 소론의 분당 원인은 곧 주자학을 둔 보수적 해석과 혁신적 해석 때문이며, 곧 보수·혁신이 그 분당의 분기점이었다. 소론의 원조인 백호 윤증은 주자의 중용주설(中庸註設)의 일부를 버리고 자기 주장을 대신 내세우는 등 자유로이 논평을 가하여 사상과 학문의 비판을 자유롭게 하였고, 송시열은 주자가 논한 바

는 지금까지 단 한 가지 이치라도 분명치 않은 것이 없을 뿐더러 단 한자라도 흐린 것이 없다고 범통을 내세워 옹호했던 것이다.

당코처럼 날카로운 디자인, 바싹 올려붙인 남자가 혁신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고 등근 옷깃이나 옷센, 늘어 처진 남자는 보수적 이미지를 강하게 한다.

### 3. 색에 나타난 당색

복색(服色)에도 당색이 나타났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충남 서천지방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론과 소론의 거두들이 충남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노론과 소론의 당파가 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당파의 영향이 복식에도 도입되어 포나 바지저고리를 지을 때 노론집안은 주로 무색[素色]을 사용하고 소론집안에서는 옥색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sup>30)</sup>.

또한 노론과 소론 사이에 남색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소론가문에서는 옥색은 남색으로 여겨 혼인 납채(納采) 시의 납치마감도 옥색으로 하였고 삼회장의 끝동도 옥색으로 달았다고 한다.<sup>31)</sup> 옥색 끝동의 저고리는 숙종 3남 연령군의 아들인 낙천군 부인 서씨의 저고리가 전해지고 있다<sup>32)</sup>. <도 9> 반면 노론에서는 청청남색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도 9> 숙종의 손자 낙천군부인 서씨 저고리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

이것을 보면 노론은 소론에 비하여 짙은 남색을 사용하였고 또한 선비의 바지저고리와 포에는 흰색을 애용하였으며, 소론을 옥색을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다.

노론·소론으로 분당되었을 시점인 숙종 조(1674-1720)에는 국상이 많아<sup>33)</sup> 백성들은 상복을 벗을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숙종은 2년(1676), 11년(1691)에 백의금지령을 내렸다. 백의금지령은 조선 초부터 있었으나 예송논쟁이 시작된 현종 대부터 영조 조까지 빈번하게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영조와 정조는 동방의 길(吉)색인 청색을 착용하도록 명하고 있다.<표 1> 소론이 평상복에 옥색을 착용한 것은 이때부터인 것으로 보이며 노론은 집권당으로서의 여유와 풍족함에서 남물도 질게 들여 착용하였고 소론은 열은 옥색으로 들여 이용하므로 복색으로도 당색을 나타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사색분당 전후 국상과 복색령

年度	王朝	國 喪			年數	服色領
		喪名	생존시 왕조	국상 당시 지위		
1674	肅宗	현종	현종	왕	3	백의금지
1676						
1680		인경왕후	숙종	왕비	1	
1683		명성왕후	현종	대비	3	
1688		장렬왕후	인조	대왕대비	1	
1691						
1701		인현왕후	숙종	왕비	1	
1718	단의왕후	경종	빈궁	1		
1720	景宗	숙종	숙종	왕	3	
1724		경종	경종	왕	3	
1726	英祖	효장세자	영조	세자	1	청의착용
1728						
1730		선의왕후	경종	대비	3	
1738						
1757		인원왕후	숙종	대왕대비	1	
1762	正祖	정성왕후	영조	왕비	1	청의착용
1793		사도세자	영조	세자	1	

<표 2> 당파에 따른 복식 차이

服飾		黨派	西人		南人
			老論	小論	
頭飾	女	족두리	숨족두리	홀족두리	홀족두리
		남자(쪽)	어깨위로 처지도록	뒤통수에 올려붙임	
	男	복건	單巾	拾巾	착용하지 않음
衣服	女	깃	등글다	뺨족하다	
		고름	깃·쇳 중간에 단다	깃에 단다	
		치마 여밈	왼 여밈	오른 여밈	오른 여밈
色		남자 복식	소색	옥색	
		남색(藍色)	청청남	옥색	

#### IV. 요약 및 결론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당쟁에 따른 복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1. 노론의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의 경우 두식은 숨족두리에 늘어 처진 남자를 하고 있으며, 옷차림도 등근 옷깃이나 옷섶의 저고리에 염료를 풍족하게 사용하여 길게 물들인 청청남색 치마를 왼 여밈으로 착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자의 경우 심의에 복건을 단건으로 만들어 쓰고 백색의 바지저고리와 포를 즐겨 착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림은 집권당으로서의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2. 소론의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의 경우 두식은 홀족두리에 뒤통수에 바싹 올려붙인 남자를 하고 있으며, 옷차림도 당코처럼 날카롭고 각이진 디자인의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오른 여밈으로 착용하였다. 남자의 경우 옥색 바지저고리와 포를 착용하였으며 심의에는 정자관이나 사방관 등의 관류를 착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혁신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3. 노론은 보수적이고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는 집권당적인 차림새였으며 소론은 날렵하며 개혁적인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 일반적으로 양반 착장방식으로 알려진 것은 모두 노론의 양식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노론이 조선 최후의 집권당이었으며 당시 우세했던 당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복식에 동조하므로 보편적인 양식으로 유행되어 현재까지 통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복식에 있어서의 당색은 주로 노론과 소론으로 대분되며 남인도 몇 가지 나타나고 있다. 북인의 특색이 없는 것은 그만큼 당의 세력이 약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남인도 갑술환국(1694)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후반기 치열한 다툼이 있던 노론과 소론의 경우에 비하여 복식에 나타난 당의 흔적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복식의 양상은 소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복식의 특징 외에도 관복의 문양, 안단 나비, 대(帶) 매는 법<sup>34)</sup>, 삼각무<sup>35)</sup>, 치마 여밈 후 뒷 주름 늘이는 모양<sup>36)</sup>, 동정다는 법<sup>37)</sup> 등에 따라 당색이 나타났다는 기록과 증언들이 있으나 이러한 것은 유물이나 문헌 자료로 확인이 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심도 깊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그 연계성을 규명해야 할 것을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1) 김상태 (1997). 한국문화사. 서울: 교문사. p. 205
- 2) 이기백 (1991). 한국사신문. 서울: 일조각. p. 290
- 3) 윗책. p. 290
- 4) 이성무 (2000). 조선시대 담쟁사 1. 서울: 동방미디어.
- 5) 김상태. 앞의 책. p. 207
- 6) 이규태 (1999). 한국인의 의식구조 4. 서울: 신원문화사. p. 49
- 7) 『練褰室記述別集』卷13  
光海朝 趙克善曰自光海中年 來率玄錦爲表以絮爲以空  
其 中貼頭上 以爲足頭里 一時好尙遂變國俗
- 8) 석주선 (1992). 한국복식사. 서울: 보진재. p. 64
- 9) 고부자 (1989). 우리나라 혼례복의 민속학적 연구. 한국복식, 7, p. 92
- 10) 조효순 (1989). 조선조수복의 풍속사적 고찰. 복식, 10, p. 35
-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p. 158
- 12) 유희경 (1995).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235
- 13) 『退溪集』, 言行錄, 卷之三  
金就礪造幅巾深衣以送 先生曰 幅巾似僧巾言失其制  
著之似未穩 乃服深衣而加程子冠...
- 14) 이기백. 앞의 책. p. 286
- 15) 『輿猶堂全書』 第1集, 茯苓李基讓墓誌銘 附見 閒話條,  
324 上  
정혜경 (1992). 실학사상가의 복식문화 I. 의류학회지, 16(2), pp. 152-153, 재인용
- 16) 이경자 (1970). 여자 저고리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81
- 17) 이규태. 앞의 책. p. 49
- 18) 김문자 (1981). 조선시대 저고리 깃에 대한 연구. 복식, 5, p. 194
- 19) 문화재관리국 (198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생활편). 서울: 문화공보부
- 20) 고부자. 앞의 책
- 21) 이은주, 홍나영, 임재영 (1994). 서민복식문화에 관한 연구1 - 경북 금오산 주변지역의 민속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의류학회지, 18(5)
- 22)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316
- 23) 박성실 (1996). 조선조 치마재고: 16C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30, pp. 295-306
- 24) 鄭良佑 처 남양홍씨(1584-1654), 홍극가(?-1670) 모친 예안이씨, 金大敬 처 원주원씨(1632-1695), 韓舞錫 처 양천허씨(1630년대 후반-1660년대 초반)의 경우 치마가 오른 여밈이었다. 특히 양천허씨의 친정은 오빠 許積이 숙종조에 영의정을 지낸 남인집안이었으므로 오른 여밈이 확실하다.
- 25) 진준현 (1999). 단원 김홍도 연구. 서울: 일지사. pp. 338-368
- 26) 유희경, 김미자, 강순제 (1989). 소림의. 안동김씨분묘발굴조사보고서. 충남: 온양민속박물관. p. 254
- 27) 박성실. 앞의 책. p. 303
- 28) 이은주 (1998). 한국 전통복식에 투영된 좌·우의 개념. 복식, 38, p. 347
- 29) 실제 서울 경기지방 기녀의 치마 여밈은 오른 여밈으로 착장했었다는 기록이 1900년대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미인계보」에 나타나 있다.
- 30)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180
- 31) 정정완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소론가에 출가하였는데 납채 시 남치마감을 옥색으로 보내왔다고 하였다. 김유경 (1994). 옷과 그들. 서울: 삼신각. p. 130
- 32) 낙천군부인 서씨의 본관은 달성이다. 당시 서명익, 서명선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달성서씨들이 소론에 속하였으므로 소론의 복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3) 1674년 현종, 1680년 숙종 인경왕후, 1683년 현종 명성왕후, 1688년 인조 장렬왕후, 1701 숙종 인현왕후, 장희빈 등 숙종 年 間에 국상이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34) 김유경. 앞의 책
- 35) 고복남 (1996). 한국전통복식문화사. 서울: 일조각
- 36) 유희경. 앞의 책
- 37) 유희경 교수님 말씀